



코스닥법인
서포터즈!
코스닥상장
법인협의회



○ 벤처의 꿈이자 지상목표 코스닥. 1996년 개설된 코스닥 시장은 10여 년의 짧은 기간동안 미국의 NASDAQ, 일본의 JASDAQ, 영국의 AIM 같은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하였다. 코스닥 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인 벤처와 중소기업의 든든한 자금 조달원이라면, 천여 개가 넘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무 지원군은 바로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회장 박경수)일 것.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권익과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를 찾아, 코스닥상장사와 예비 코스닥상장사 모두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자.

어쩐지 유독 친근해 보이는 두 사람이다. 오늘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일일체험의 게스트는 SNH 장명 IR팀장, 그리고 호스트는 협의회 IR팀 정의송 대리이다. 장명 팀장은 통신장비업체인 SNH의 IR담당자로 무려 7년째 협의회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고, 정의송 대리와 모든 협의회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탐방. 1,000여 개의 코스닥 상장법인, 그리고 예비 코스닥상장법인이라면 곳곳에 숨어있는 정보도 놓치지 마시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의송 대리가 가장 먼저 안내한 곳은 협의회 김재찬 상근부회장의 방. 김 부회장이 장명팀장에게 악수를 건내며 맞이한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오던 곳이지만 사무국 전반을 본다니, 오늘은 협의회가 새롭게 보입니다.” 장명 팀장의 시원시원한 인사에 김재찬 부회장이 반갑게 답한다. “장 팀장이 와주셔서 감사하죠. 잘 아시겠지만, 협의회 사무국은 다섯 개 팀이 뿔뿔뿔뿔뿔뿔 코스닥상장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 팀장은 평소에 IR팀이랑 회원지원팀만 보셨죠? 오늘 꼼꼼하게 협의회 구경 잘 해주세요.”

99년 코스닥시장 및 상장법인 모두의 성장과 실익을 위해 첫 발을 내딛은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현재는 박경수 PSK 대표가 협의회장으로 재임 중으로, 회원총회 아래 부설위원회, 상담역, 그리고 ▲경영지원팀 ▲회원지원팀 ▲연수팀 ▲조사연구팀 ▲IR팀으로 사무국이 조직, 코스닥상장법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찬 상근부회장의 따뜻한 환대에 이어 준비된 순서는 협의회 홍보동영상 관람. 실무자 교육이 주로 이뤄지는 강당에서 제작된 지 며칠 안된 딱딱한 협의회 소개가 상영됐다. “어, 이거 멋있네요!” 장명 팀장의 반응에 “어휴, 촬영하는 것도 편집하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멋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하하하.” 활짝 웃는 정의송 대리. 두 사람의 대화가 옆에서 보기에도 편하고 자연스럽다. 알고 보니 장명 팀장은 협의회 또 다른 가족이라고. 업무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협의회 네트워킹 모임인 백두산행회의 2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IR포럼의 공시제도 실무개선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럼 이제 사무국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협의회 탐방은 협의회 안살림을 책임지는 경영지원팀부터 시작이다. “경영지원팀은 코스닥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격년마다 대한민국코스닥대상을 통해 우수한 코스닥법인들을 독려하고, 우수 법인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코스닥법인들의 성장을 위해 코스닥 CEO 아카데미와 M&A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최익환씨는 업무 설명에 장 팀장도 “어서 SNH도 좋은 실적과, 윤리경영으로 내년 코스닥대상 준비해야겠어요” 하며 씩웃는다. 경영지원팀에서는 뜻깊은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있다. 저소득층 안면기형 아동의 수술을 돕는 ‘미소사랑 후원회’가 바로 그것. 상시적인 후원과 함께 지난해와 올해 4월 ‘미소사랑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하여 벌써 여섯 명의 안면기형 아이들에게 새얼굴을 찾아주었다.





이번에는 증권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건의를 맡고 있는 조사연구팀에 들었다.

“와~ 뭔가 여긴 책이 잔뜩이네요” 장 팀장은 조사연구팀과, 바로 옆에 위치한 서고를 둘러본다. “조사연구

팀은 코스닥법인 관련 정보와 자료를 조사·분석해서 다양한 연구자료와 증권거래규정집, 경영인

명록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와

분석, 심포지엄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5~6건씩 관계기관과 정부에 코스닥시장과 상장사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정책건의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조사연구팀의 김구 대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간행물을 살펴보는 장명 팀장.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매월 발간되는 <코스닥저널>로, 꼭 필요한 코스닥 관련 정보들을 상장사와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조사연구팀의 또 다른 작품이다.

한편 협의회는 조사연구팀의 주도로 지난 5월 보다 신뢰받는 코스닥을 만들고자 ‘clean KOSDAQ’ 선포식을 개최,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가고 있다. “클

린 코스닥’ 느낌이 좋네요” 장명팀장이 눈빛으로

자세한 설명을 채근한다. “과거 일부 기

업의 회계부정

과 주가조작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앞으로

는 일어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법인들 스스로 다짐하고 행동하고자 코스닥시장 본부와 함께 클린코스닥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김구 대리의 배경 설명에 장 팀장도 동의를 표한다. “협의회에서 경영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같은 가치를 환기시켜 준다니, 반갑습니다. SNH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클린한 코스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IR담당자라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회원지원팀. “저 회원지원팀에서도 많은 도움 받았었어요. 공시관련으로는 회원지원팀이 궁금증 해결사거든요” 라고 반색하는 장팀장. “오신 김에 궁금하신 점 있으심 말씀 좀 나누시죠.” 회원지원팀의 김현민씨가 장 팀장과 테이블에 앉아 이것저것 친절하게 상담을 한다.

회원지원팀은 회원사의 실질적인 경영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IR 담당자들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공시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연중 수시로 조찬회, 세미나, 회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원 간 활발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회원지원팀은 주요경영실적 조회나, 공시, 분석, 통계의 업무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입니다. 코스닥 법인이시라면 언제든 부담 없이 궁금한 점은 물어주시고 필요한 점은 말씀 주세요.” 김현민씨의 말이 미덥다.

한참을 이곳저곳을 살핀 장 팀장에게 정 대리가 차 한 잔을 권한다. 큰 창

이 시원한 테이블에서 계속 이어

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보니 협

의회에는 이런 테이블이 많네

요. 손님이 많아서 그런가?” “아

무래도 회원사 IR담당자들도 많

이 들르시고 개별적인 상담이 잦

거든요. 협의회 존재의 이유가 코스닥상

장사들의 지원 아니겠어요?!” 정대리의 웃음

에 진지함이 묻어있다. “하긴 저도 협의회에 본격적으로 2003년부터

드나들었거든요. IR팀, 회원지원팀 두루두루 도움 받으면서, 왜 더 빨리



드나들었거든요. IR팀, 회원지원팀 두루두루 도움 받으면서, 왜 더 빨리 몰랐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장명 팀장과 정 의송 대리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끈끈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다음 순서는 공시 담당자라면 꼭 거쳐 가는 연수팀 체험. 연수팀에서는 회원사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장명 팀장도 2001년 SNH 상장 후 연수를 받으면서 협의회를 알게 됐다고 한다.

“코스닥상장사 공시담당자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공시담당자 직무심화과정과 전문과정이 매월 진행되고 있으며, CFO와 CEO레벨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도 대규모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 위치한 상장법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에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올 10월에도 부산에서 지방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꼭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팀 임태운

대리가 꼼꼼하게 설명하자 장 팀장이 덧붙인다. “연수팀 교육받으면서 회원사간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구축되더라고요.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육도 같이 받고 정보도 나누고, 실용적인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수팀의 교육에 관한 정보는 협의회의 홈페이지(www.kosdaqca.or.kr)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코스닥 상장을 앞둔 예비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되므로 상장을 목표로 하는 벤처들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플러스가 될 듯.

드디어 마지막 IR팀의 소개 순서. “뭘 IR팀 업무야 장명 팀장이 더 잘 알죠. 그렇지 않아 장 팀장?” 반갑게 장명 팀장의 어깨를 감싸며 농담을 건네는 IR팀 김종선 부장. “IR팀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원사와 관련된 기자간담회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더불어 회원사들의 개별·합동 IR 사업을 주관하는 한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회원사들의 정보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의 설명에 장명 팀장이 기다렸다는 듯 IR팀을 더 자랑한다.

“홍보 업무를 해본 적도 없던 제가 덜컥 SNH 상장 때부터 IR을 맡게 되면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IR팀이 제공해준 서비스, 정보,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제겐 정말 큰 도움이 됐었지요. 특히 협의회 IR팀이 주선해주는 검증된 애널리스트, 기자들과의 만남은 대규모 기업설명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 팀장의 칭찬처럼 실제 IR팀에서는 수차례 IR행사를 주최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인적네트워크로 회원사에 실무적인 도움은 물론, 강력한 홍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 회

원사에도 눈을 돌려 올 상반기

이미 대구·구미, 대전, 경기 화성 지역에서 애널리스트 및 기자단과 함께 IR투어를 개최한 바 있는 IR팀. 올 하반기에도 지방 회원사를 위한 IR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얻어

가는 것도 많은 유익한 시간이었네

요. 이제까지 협의회는 저와 SNH의 든든한 서포터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회원사와 윈윈 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협의회 일일체험을 마친 장명 팀장은 업무관계 그 이상의 애정을 담아 협의회의 건승을 바랐다.

“협의회는 코스닥법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회원사께서 모르셔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소망은 더 많은 회원사가 SNH처럼 협의회를 찾아주시고, 또 같이 코스닥시장의 성장을 위해 상호공존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더욱 고민하여 더 많은 회원사들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협의회 전체가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회를 대표한 오늘 체험의 가이드 정의송 대리의 멋진 각오멘트로 ‘코스닥법인의 여의도 사랑방,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의 체험은 마무리 되었다.

수많은 정보 중 내게 꼭 필요한 그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즉 know-how보다 know-where가 중요한 시대.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궁금해 하는 노하우는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모두 있다고 하여도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라면, IR 담당자라면 협의회의 문을 두드려 보는 건 어떨까. 눈과 귀를 열고 열심히 뛰는 코스닥법인 서포터즈가 거기 있으니까.